

지방자치·종합

“文-安 ‘국정운영 동반자’ 인식 연대를”

재야원로 원탁회의, 민주당에 고강도 정치혁신 강조

안측엔 “정권교체 없으면 새정치도 없다”

재야 원로 중심인 ‘희망2013-승리 2012 원탁회의’는 4일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전 대선 후보의 유기적인 연대를 강력하게 요구했다.

문 후보에게는 ‘고강도 쇄신’을, 안전 후보에게는 ‘정권교체를 위한 역할’을 주문하는 한편 유권자들에게는 적극적인 투표 참여를 독려했다.

백나평 서울대 명예교수, 함세웅 신부 등으로 구성된 원탁회의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통합당의 정치 청탁과 관련, “문재인 대선 후보가 안철수 전 후보 지지 세력의 새정치 열망을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일관되게 밝혀온 사실은 높이 평가하지만 국민이 ‘이만하면 됐다’고 하기엔 아직 멀었다”며 고강도 쇄신을 주문했다.

원탁회의는 “정치혁신에 대한 확고한 비전과 실현 방안을 더 내놓고, 당장 실현할 부분에 대해선 실행에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원탁회의는 “미래를 위해 어떻게, 얼마나 더 잘할 것인가를 실감나게 보여주는 선거 운동 자체가 정치 혁신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민주통합당의 적극적인 정치 혁신을 주문했다.

원탁회의는 “상대방의 터무니 없는 공세에는 그때그때 효과적으로 대

응해야 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부자와 특권층 정당이 아니라 중산층과 서민 그리고 창조적인 개인들의 정당임을 실감케 하는 정책과 행보”라고 도당부했다.

이와 함께 “대통령 후보를 낸 거대 정당과의 연대가 한갓 들리니 서기가 되지 않으려면 선거기간의 연대 대상들이 국정운영의 필수 동반자라는 확고한 인식에서 연대 작업이 진행해야 한다”고 촉고했다.

특히 “선거 승리 이후의 첫걸음부터 민주당이 기득권을 내려놓고 더 폭넓은 세력과 공동보조를 취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안철수 전 후보 측에 대해서도 “안전 후보 캠프 인원이 독자적인 새정치 운동을 추진하며 정권교체에 적극적으로 이바지하는 방법도 나쁘지 않다”면서도 “어쨌든 정권교체가 이뤄지지 않으면 새정치도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원탁회의는 “후보자 중 마음에 꼽드는 사람이 없다거나 정치하는 자들은 다 똑같다는 상투적인 생각에 휘둘려 투표를 포기하는 것은 결국 기득권 세력을 편하게 해주는 길밖에 안 된다”며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를 당부했다.

/연동국기자 tuim@kwangju.co.kr



시각장애인 모의투표 체험

사동 광주시시각장애인 연합회 강당에서 시각장애인을 위한 모의투표 시연회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北, 로켓 낙하지점 국제해사기구에 통보

부안 격포항 서쪽 140km

정부 “발사시 대가 있을것”

북한이 이달 중순 발사 예정인 장거리 로켓의 1단계 추진체와 덮개(페어링) 등의 낙하지점 좌표를 국제해사기구(IMO)에 통보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발사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임을 재확인했다.

IMO는 3일(현지시각)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예고한 대로 이달 10~22일 사이 오전 7~12시에 서해 공해상으로 발사할 예정이라며 1,2단계 추진체와 덮개의 낙하지점을 알려왔

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1단계 추진체 낙하 예상지점은 전북 부안 격포항 서쪽에서 약 140km 떨어진 가로 26km, 세로 94km의 사각형 해역이다.

사각형 꼭짓점의 북위와 동경 좌표는 ▲북서지점 35° 44' 06" / 124° 30' 30" ▲북동지점 35° 44' 07" / 124° 54' 23" ▲남서지점 34° 58' 36" / 124° 32' 32" ▲남동지점 34° 58' 43" / 124° 56' 11"이다.

로켓 덮개의 낙하 예상위치는 제주도 서쪽 약 88km 사각형 해역이며, 2단계 추진체의 낙하 지점은 필리핀 동쪽 136km 해역이다.

조태영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4일

정례브리핑에서 “탄도 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북한의 (로켓) 발사는 안보리 결의 1718 · 1874 및 지난 4월 안보리 의장성명의 중대한 위반이자 도발행위”라면서 “북한이 실제로 발사를 감행하면 그에 따른 대가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정부는 우선 발사 계획을 중지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관련국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발사했을 경우의 대응 방안도 협의 할 것”이라면서 “북한은 국제사회에 우려와 경고를 받아들여 발사 계획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합뉴스

김정일 사망 1주기

北, 추모분위기 고조

북한이 김정일 국방위원장 1주기(12월17일)를 앞두고 추모 분위기를 한층 고조시키고 있다.

조선중앙통신과 조선중앙방송은 4일 김 위원장을 회고하는 모임이 아프리카 기니와 유럽 오스트리아에서 결성됐다고 전했다.

앞서 북한 매체들은 브라질의 한 잡지에 김 위원장의 글이 실렸고 방글라데시에서는 1주기를 앞두고 토론회, 영화감상회, 사진전이 열렸다고 전했으며 지난달 말부터 아프리카 베냉을 비롯해 유럽의 스위스, 러시아, 노르웨이, 이탈리아 등 해외에서 김 위원장을 추모하는 열기가 뜨겁다 고 선전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자공인중개사

팝니다..토지, 전답, 임야 등

- 담양군 담양읍 학동리 담나루길 1번지 P당 3만원
- 광주 신기구 일반상업지역 대지194P P당390만
- 정성 백양사업구 모델 및 식당(상업종)대800m, 매기18억
- 영광군, 읍, 자동차정비공장20년간운영, 자동차점차점, 매기6억
- 화순 이양면 초량리 일(77.727m², 23,512평) 매기11억
- 광주 서구 매월동 자연녹지 및 종공업지역, 1천4백P, 2천5백P, 2만P 등(각종 공장 및 기기사용 가능)
- 광주 동구 수기동 대지590P, 중심상업지역 매기24억
- 화순군 동면 성서리 호수부근 대지 210P 매기1억3천만
- 국군군 오산면 조양리 매실밭 421P, 매기3400만
- 오성동 3층신축건물매매 111억(용보595평5천평화) 월수6백만
- 정성 남면 2층주거지역, 전200P, 창고, 공장, 주택등, 매기1억
- 광주 우산동 4층월세 2416억 월수 6백만,
- 영광군 홍농동 주유소, 대지400평 매기5억
- 북구 중동동 원룸3층월세 매기4억 월수 250만(인접별도)
- 정성군 북하면 백양사업구 주유소, 대919㎡, 매기 4억5천만
- 광주 오치동 아파트 밀집지역내 5층상가, 대169P, 매기17억

구합니다!(매수자대기)

- 철강공장부지1~3천평 (담양 대전현부근 8.8M이상도로집)
- 담양, 봉산면부근 공장부지(3천평(대형차량진입기능)
- 소나무 좋은 임야 1만평이상(장성, 화순, 담양, 홍평, 국성동)
- 광주, 첨단2지구내 병원신축부지 150평~300평
- 개인소유 저수지 3천평이상
- 전남, 전북일원 폐교부지 3천평이상
- 도로이전 및 경관좋은 임야 1만평이상
- 일률 신축부지(광산구 신정동 및 신가, 하남, 첨단지구 등)

기타물건다량보유-전화상담바랍니다

전화 : 062-268-2834
HP : 010-6460-2834

010-9731-8949
(치평동랜드피아 0/P 총)

내년 광주풀리 사업 20억 전액 삭감

시의회 상임위, 황지해 정원 조성비 4억도

광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광주시가 추진할 계획인 내년도 폴리디자인사업 20억원 전액과 LED(발광ダイオード) 시범도시 조성비 15억원 전액을 각각 삭감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겼다.

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는 시가 내년 설립을 추진하는 ‘희망나눔 봉사재단’ 출연금 9억830만원도 삭감했다.

산업건설위원회의 폴리디자인사업비 삭감과 관련 김보현 산건위원장은 “2차 폴리디자인사업이 진행중에 있고, 그 결과를 본 뒤 3차 사업 추진에 대해 시와 시의회가 논의한 뒤 결정하기로 했었다”며 “그럼에도 시가 무작정 내년도 사업예산을 세워 올린 것은 어초 약속과 틀려 예산을 삭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산업건설위원회는 이외에 골목상권 살리기 지원비 14억5000만원, 버스장착 단속카메라 설치 2억5000만원, LED 원예농업육성비 2억원 전액을 각각 삭감했다.

환경복지위원회는 또한 절차상의 이유를 들어 ‘황지해 정원’ 조성비 4억원도 전액 삭감했다.

환경복지위원회는 희망나눔 봉사재단 설립과 관련한 시민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아 내년에 공청회를 열어 여론을 수렴한 뒤 결정하는 취지로 예산을 삭감했다.

앞서 광주시는 복지 사각지대의 복지 대상자를 찾아내고 민간의 기부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희망나눔 봉사재단을 내년 상반기에 설립하기로 했다.

시는 이를 위해 시 출연금 50억원, 민간지원금 등 기타 기금 50억원 등 총 100억원의 기금을 마련할 계획이다. 직원 15~30명 규모로 출발할 희망나눔 봉사재단은 올 연말과 내년 초 창립 발기인 대회와 설립허가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개원할 예정이 있으나 관련 예산 삭감으로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환경복지위원회는 또한 절차상의 이유를 들어 ‘황지해 정원’ 조성비 4억원도 전액 삭감했다.

환경복지위원회는 이어 ▲광주 청소년 학생체육대회 1억원 ▲수도꼭지 주부 수질검사단 운영비 1억1900만원 ▲그린 액션우수기관지원금 6000만원 ▲용연정수사업소 정수약품 구입비 5000만원 ▲주부 수질검사단 현장조사비 및 기구 구입비 2500만원 ▲빛고을 산들길 개방 행사비 2000만원 등을 삭감했다.

환경복지위원회는 이어 ▲광주 FC 구단의 내년도 운영예산이 10% 삭감될 예정이어서 ‘이중고’가 예상된다.

광주시의회 행정자치위는 4일 광주시 체육단체회원국에 대한 2013년도 예산은 심의에서 광주FC 지원 예산으로 편성한 ‘도시브랜드 강화 마케팅’ 예산 25억원 가운데 2억5000만원을 삭감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정가 라운지

전남 농어민 대표 문후보 지지

배삼태 전 카톨릭 농민회 회장, 김양곤 전 학농연 전남도 부회장 등 48명은 4일 오후 전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농어민이 주체가 되는 농어업, 국가가 책임지는 국민농어업시대를 열어갈 후보를 선택하자”며 이같이 밝혔다.

전남 농어민 대표들은 “문재인 후보와 함께 정권교체의 대열에 동참해서 새로운 시대, 희망의 농정시대를 열어가자”고 주장했다.

배 전 회장이 낭독한 선언문에서 이들은 “지난 MB 정부 5년은 농어업의 위기라고 할 만큼 암울했던 시기였다”고 비판한 후 “눈앞에 닥친 대선이야말로 향후 농어업 구조를 재편성할 절호의 기회가 아닐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전남 농어민 대표들은 “문재인 후보와 함께 정권교체의 대열에 동참해서 새로운 시대, 희망의 농정시대를 열어가자”고 주장했다.

전남 농어민 대표들은 “문재인 후보와 함께 정권교체의 대열에 동참해서 새로운 시대, 희망의 농정시대를 열어가자”고 주장했다.

재외유권자 22만명 오늘 투표 시작

현정 사상 처음으로 제18대 대통령선거에 도입된 재외 유권자 투표가 5일부터 엣새 동안 진행된다.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재외유권자 투표는 전 세계 110개국 164개 공관에서 시행되며 지정된 대사관·영사관·출장소에서 오전 8시에서 오후 5시 사이에 투표할 수 있다.

투표기간은 재외선거인 규모에 따라 4일부터 6일까지 운영된다. 이번 대선에는 재외유권자 22만2389명이 선거인 명부에 등록했으며 이는 전후 선거권자(223만3695명)의 약 10%에 해당한다.

투표함은 투표마감 뒤 외교행낭을 통해 16일 오후까지 국내로 보내진다.

안지지 모임 일부 철회보 지지

선거벽보·현수막 훼손 신고 포상금

중앙선관위는 선거벽보·현수막 등 선거 관련 홍보물을 훼손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선관위는 올해보다 선거홍보물 훼손 사례가 많아 전국의 선거부정 감시요원 4000여명을 통해 감시·단속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포상금 규모는 선관위 산하 포상금심의위원회에서 위법의 경증을 고려해 결정된다.

선관위는 최근 벽보·현수막 훼손행위 8건을 수사 의뢰하고 12건을 관할 경찰서로 이첩했다고 밝혔다.

가 은

공인중개사

무인텔 급 매

“담양” 무인텔

대 지 : 5,048㎡

연평평 : 2,474㎡

객 실 : 32개

현 성업중

상무지구에서 15분

매매가

상담후 결정

염전 급 매

해남 염전

138,600㎡